



환호와 난물사이 11m

러시아, 스페인과 승부차기 4-3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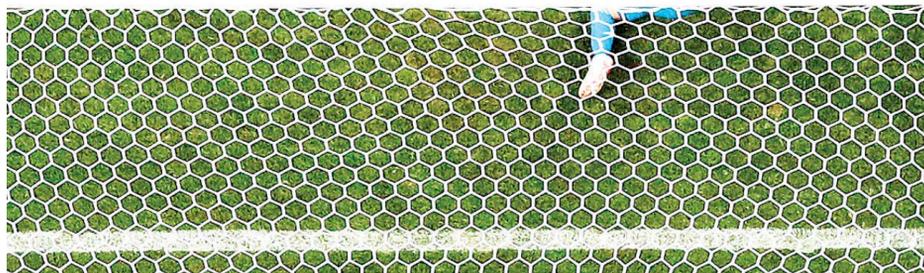
FIFA 70위, 10위 꺾고 48년만에 8강 감격 스페인, 개최국에 4전4패... 징크스 발목

월드컵 개최국 러시아가 '무적함대' 스페인을 승부차기 접전 끝에 따돌리고 8강행 티켓을 따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0위 러시아는 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16강전 스페인(10위)과 경기에서 전·후반과 연장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겼다. 이로써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48년 만에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도 러시아는 5위를 기록했으나 당시 대회 제도는 2차 리그를 벌여 상위 4개 팀이 4강 토너먼트를 치르는 식으로 진행됐다. 러시아는 당시 12개 팀이 겨루는 2차 리그까지 올라오나 2차 리그 각 조 1위가 벌이는 4강 토너먼트에는 들지 못해 8강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도 8강의 의미는 사실상 없었다. 이날 경기에서 첫 골은 스페인이 만들어냈다. 전반 12분 오른쪽 측면 프리킥 상황에서 마르코 아센시오가 올려준 공이 문전에서 러시아 수비수 세르게이 이그나세비치의 발에 맞고 들어가는 자책골이 됐다. 이그나세비치는 스페인 세르히오 라모스와 함께 넘어지다가 공이 뒷발에 맞고 러시아 골문 안을 향하는 바람에 불운의 주인공이 됐다. 0-1로 끌려가면서도 줄곧 수세에 몰린 경기를 펼치던 러시아는 전반 41분에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아르툰 주바가 헤딩하는 상황에서 공이 스페인 제라르 피케의 팔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 페널티킥을 주바가 직접 차 넣으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후반에도 스페인이 경기 주도권을 잡았으나 골을 넣지 못했고 결국 승부는 이번 대회 첫 연장전에 접어들었다. 연장 전·후반 30분에도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다. 승부차기에서 두 팀은 2-2까지 맞섰지만 먼저 선축을 한 스페인의 세 번째 키커 코케가 러시아 골키퍼 이고리 아킨페예프의 선방에 막히면서 패배의 기운이 감돌았다. 아킨페예프는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면서 코케의 오른발 슈트를 정확히 막아냈다. 반면 러시아는 네 번째 키커까지 모두 골을 성공했고, 스페인은 5번째 키커로 나선 이아고 아스파스의 슈트 골대를 빗나 가며 패배가 확정됐다. 스페인은 이날 경기에서 슈팅 수 15-4, 유효 슈팅 9-1, 공격 점유율 74%-26% 등 내용 면에서는 압도하고도 끝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

크로아티아, 덴마크와 승부차기 3-2 승

슈마이켈 - 수바시치 '막상막하' 선방쇼 모드리치 PK 실축 당고 20년만에 8강

'발칸 전사' 크로아티아가 승부차기 혈전 끝에 '북유럽의 강호' 덴마크를 꺾고 8강에 진출했다. 크로아티아는 2일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덴마크와 전·후반과 연장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겼다. 이로써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3위) 이후 20년 만에 8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역시 20년 만의 8강 진출을 노린 덴마크는 연장 후반 골키퍼 카스페르 슈마이켈이 크로아티아의 '중원사령관' 루카 모드리치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며 기사화됐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크로아티아는 우승후보 중 하나인 스페인을 꺾는 이변을 일으킨 개최국 러시아와 오는 8일 소치 피시트 스타디움에서 8강전을 벌인다.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승부차기 끝에 16강전을 통과해 8강에서 격돌한다. '죽음의 조'로 꼽힌 D조에서 3전 전승으로 조 1위에 오른 크로아티아는 경기 시작 61초 만에 덴마크에 첫 골을 내줬다. 덴마크는 오른쪽에서 요나스 크누센이 길게 스로인한 공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마티아스 예르겐센이 원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공은 크로아티아 골키퍼 다니엘 수바시치의 발에 맞고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크로아티아는 곧바로 반격했다. 전반 4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돌파한 시메 브루살코의 낮은 크로스가 덴마크 수비에 걸렸다. 그런데 덴마크 수비수가 걷어내려던 공이 동료 선수의 몸에 맞고 마리오 만주치치 앞으로 흘렀다. 만주치치는 눈송이로 골문 왼쪽 구석으로 공을 차넣어 1-1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전에 이어 연장 전반에서도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연장 후반도 마무리될 무렵, 크로아티아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모드리치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받은 안테 레비치가 골키퍼까지 제진 상황에서 덴마크의 예르겐센에게 태클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연장 12분 모드리치가 페널티킥에 나섰지만, 골키퍼 슈마이켈이 몸을 던져 막아냈다. 크로아티아는 눈앞으로 다가온 승리를 놓쳤고, 덴마크는 극적으로 기사화됐다. 결국, 연장 후반 추가시간까지 골이 터지지 않으며 승부차기로 넘어갔다. 덴마크의 선축으로 시작된 승부차기에서 양 팀의 첫 번째 키커로 나선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필란 바텔의 슈팅은 모두 골키퍼의 손에 가로막혔다. 2-2까지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덴마크와 크로아티아의 4번째 키커인 라세 쇠네, 요시프 파바리치가 나란히 실축하면서 스코어는 그대로 유지됐다. 결국, 5번째 키커에서 희비가 갈렸다. 크로아티아 골키퍼 수바시치가 덴마크의 니콜라이 예르겐센을 막아내고 크로아티아의 이번 라키티치가 골망을 흔들면서 결국 크로아티아가 8강에 오르게 됐다. /연합뉴스



'심장 싸움' 러시아 골키퍼 이고리 아킨페예프가 러시아월드컵 16강전에서 스페인 마지막 키커 이아고 아스파스 골을 막아내며 8강행을 확정 지었다.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 손흥민 확정”

김학범 감독 이달 중순 엔트리 발표 ... “조현우, 구체 거론 어려워”

다음 달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AG)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는 김학범호에 '천군만마' 손흥민(26·토트넘)의 발탁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김학범(사진)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달 중순 세 명의 와일드카드(23세 이상 선수)를 포함한 20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고, 다음 달 초 선수들을 소집할 예정이다. 김 감독은 K리그를 중심으로 25명의 U-23 대표팀 선수들을 소집해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최종 엔트리 20명 가운데 23세 이하 선수 17명은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린 가운데 세 명의 와일드카드 후보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김 감독은 와일드카드 선발 구상을 묻는 말에 “아직 포지션과 선수를 결정하지 못했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써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손흥민의 발탁만큼은 거의 확정적이다. 김 감독은 “손흥민을 뽑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면서 “손흥민을

뽑는 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손흥민 역시 한국이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지난달 29일 귀국 인터뷰 때 “제가 가고 싶다고 아시안게임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김학범 감독님이 뽑아주셔야 할 수 있다. 구단과 이야기도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구단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이 고민하는 건 손흥민 외 2명의 와일드카드 후보다.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그는 현재 예비 엔트리에서 가장 취약한 포지션인 공격수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와일드카드와 상관없이 뽑을 수 있는 공격수 황희찬(22·잘츠부르크) 차출에 적극적인 이유다. 28년 만에 금메달을 수확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공격수 김신욱과 미드필더 박주호, 골키퍼 김승규 등 3명이 와일드카드로 뽑혔다. 당시 U-23 대표팀 사령관이었던 고(故) 이광중 감독은 손흥민 선발에 공을 들였지만 소속팀 레버쿠젠의 반대로 차출하지 못했다. 나머지 포지션은 미드필더나 수비수가 될 가능성



이 크다. 골키퍼로는 인도네시아 전지훈련에 참가했던 송범근(전북)과 강현무(포항)가 K리그에서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며 든든하게 골문을 지키고 있어서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선발 쇼를 펼쳤던 조현우(27·대구)의 발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선수를 거명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삼갔다. /연합뉴스

스페인축구 이강인 귀화 추진

틀롱컵 등 맹활약...발렌시아, 재계약 1250억 제안

스페인축구협회가 이강인(17·발렌시아CF·사진)의 귀화를 원한다는 스페인 언론의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지인 '수페르 데포르테'는 2일(한국시간) “스페인축구협회가 이강인의 귀화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축구협회 기술위원들이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의 뛰어난 잠재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강인은 최근 틀롱컵을 비롯해 여러 대회를 통해 좋은 선수로 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스페인축구협회가 3년 전부터 이강인의 귀화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라며 “6월 30일 자로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거주한 지 8년이 지나면서 스페인 국적을 딸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 이와 함께 완벽한 스페인어 구사 능력 등 조건도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페인축구협회가 귀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이강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스페인축구협회는 계속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국내 TV 프로그램인 '날아라 슯돌이'



에 출연해 축구 자질을 인정받은 이강인은 그 해 11월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이강인은 2013년 12월 스페인 아로나에서 치러진 블루 BBVA 국제대회에서 4골을 터뜨렸고, 특히 8강전에서 강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수비진 3명을 제치고 골을 넣으면서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제안을 받는 등 성장을 이어간 이강인은 지난해 16살의 나이로 U-18 대표팀에 발탁됐고, 지난 6월 U-19 대표팀에 합류한 뒤 틀롱컵에 출전해 중거리포와 프리킥으로 3경기에서 2골을 터트리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틀롱컵이 끝나고 나자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잡으려고 재계약 조건에 1억 유로(약 1천250억원)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